

보건·복지 ISSUE & FOCU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SSN 2092-7117
제 252호 (2014-31) 발행일 : 2014. 08. 08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중증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자립, 일상생활, 근로활동 등에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지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성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함. 중증장애인의 주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였고, 가구 및 개인소득은 적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임. 일상생활시 68.9%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고, 현재 주된 돌봄자는 가족임. 사회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은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의 순이었음

중증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맞춤형 지원, 취약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 일상생활 자립정도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함



김성희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1. 중증장애인

- 장애인의 장애특성은 크게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으로 제시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유형은 15개의 장애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1~6등급으로 구성됨(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장애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어짐¹⁾
 -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를 나타내는데 활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경중장애인으로 구분되며 중증장애인의 범위는 대부분 장애등급 1~2등급으로 한정함
- 중증장애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일상생활, 자립, 근로활동 등에 더욱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지원과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서 우선성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주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중증도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어 있는데, 대부분 1등급과 2등급의 장애등급 상태인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음

* 본 연구는 '김성희 외(2012). 수요자중심 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내용 일부를 발췌 및 수정·보완하여 작성함. 중증장애인의 실태는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등록중증장애인(1-2등급) 573,884명을 재분석한 결과임.

1) 신체적 장애의 외부신체기능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가, 내부기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가, 그리고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로 구성됨.

- 장애인실태조사(2011년) 결과, 우리나라의 추정 재가장애인가구 2,611천명 중 97.2%인 2,517천명이 장애 인등록을 하였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22.0%, 경증장애인은 78.0%로 나타남²⁾

○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분포는 장애아동(18세 미만)이 9.7%, 성인장애인(18세 이상~ 65세 미만)이 58.3%, 장애인노인(65세 이상)이 32.1%로 나타나 성인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많음

- 본 고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분포(장애아동/성인장애인/장애인노인)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중증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 중증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8.6%이고, 교육수준은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가 45.6%, 결혼 상태는 유배우상태가 4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남자의 비율이 높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여자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

- 남자 비율은 아동층에서 61.3%이던 것이 노인층에서는 52.3%로 감소하였으나, 여자의 비율은 아동층에서 38.7%이던 것이 노인층에서는 47.7%로 증가함

○ 교육수준은 아동 및 성인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노인층의 경우는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무학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 교육수준은 노인층이 70.8%로 성인층의 30.2%에 비해 2배 이상 많음

○ 결혼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성인층에서 42.6%, 노인층에서는 57.4%로 나타났고, 미혼의 경우는 성인층이 42.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노령으로 인해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 노인층보다 성인층에서 미혼비율이 높은 것은 성인기 이전부터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개인적 특성

(단위: %)

구분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전체
성별	남	61.3	61.6	52.3	58.6
	여	38.7	38.4	47.7	41.4
교육수준	미취학	9.7	0.0	0.0	0.9
	무학	8.9	8.8	27.0	14.7
	초등학교	45.2	21.4	43.8	30.9
	중학교	19.4	16.9	11.4	15.4
	고등학교	16.9	38.2	11.9	27.7
	대학 이상	0.0	14.7	5.8	10.5
결혼상태*	유배우	-	42.6	57.4	47.8
	사별	-	5.8	35.8	16.4
	이혼·별거	-	9.7	5.6	8.2
	미혼	100.0	42.0	1.2	27.5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만 18세 이상 기준

2) 본 연구에서는 장애정도를 1~2급은 중증, 3~6급은 경증으로 구분함.

■ 중증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보면, 가구원 수는 2인 가구가 30.0%, 가구내 장애인수는 1인이 있는 경우가 83.3%, 가구유형은 2세대 가구가 5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 가구내 장애인 수가 1명인 가구는 83.3%, 2명 이상인 가구는 16.7%로 나타났는데, 장애인수가 1인인 경우는 장애아동층이 89.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2인 이상인 경우는 성인장애인층에서 18.8%, 장애노인 14.9%, 장애아동 층에서 10.6%의 순으로 나타남

○ 가구유형은 2세대 거주 가구가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세대 가구 20.8%, 3세대 가구 12.9%, 독거 가구 12.3%, 비혈연 0.6% 순으로 나타남

- 2세대 가구의 경우 장애아동층에서 86.2%로 가장 많았고, 독거는 장애노인의 17.7%, 성인장애인의 11.3%, 장애아동의 0.8%로 나타남

〈표 2〉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가구 특성

(단위: %)

구분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노인	전체
가구원수	독거	0.8	11.3	17.7	12.3
	2인	2.4	28.3	41.5	30.0
	3인	26.0	28.1	16.9	24.3
	4인 이상	70.8	32.3	23.9	33.4
장애인 수	1인	89.4	81.3	85.1	83.3
	2인	8.1	16.8	14.7	15.2
	3인 이상	2.4	2.0	0.2	1.5
가구 유형	1세대	0.8	15.4	36.6	20.8
	2세대	86.2	64.2	24.1	53.4
	3세대	12.2	8.7	20.6	12.9
	독거	0.8	11.3	17.7	12.3
	비혈연	0.0	0.4	1.0	0.6
계		100.0	100.0	100.0	100.0

3. 중증장애인의 장애특성

■ 중증장애인의 주된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 24.7%, 지체장애 19.3%, 지적장애 16.8%의 순으로 많았고, 간장애, 간질장애, 장루·요루장애가 가장 적었음

〈표 3〉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주된 장애유형

(단위: %)

구분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노인	전체
지체장애	7.3	22.4	17.5	19.3
뇌병변장애	17.7	16.5	41.8	24.7
시각장애	1.6	7.2	11.7	8.1
청각장애	2.4	9.4	12.2	9.6
언어장애	0.0	0.5	0.2	0.4
지적장애	48.4	19.8	1.9	16.8
자폐성장애	21.8	1.3	0.0	2.9
정신장애	0.0	10.4	1.9	6.7
신장장애	0.8	10.3	8.8	8.9
심장장애	0.0	0.1	0.5	0.2
호흡기장애	0.0	1.1	2.9	1.6
간장애	0.0	0.1	0.2	0.2
안면장애	0.0	0.4	0.2	0.3
장루·요루장애	0.0	0.0	0.0	0.0
간질장애	0.0	0.4	0.0	0.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경증장애인의 주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62.0%), 청각장애(10.6%), 시각장애 (10.4%)의 순임.

○ 장애아동의 경우 지적장애(48.4%), 자폐성장애(21.8%), 뇌병변장애(17.7%)의 순으로, 성인장애인의 경우는 지체장애(22.4%), 지적장애(19.8%), 뇌병변장애(16.5%)의 순으로 나타났고, 장애노인은 뇌병변장애(41.8%), 지체장애(17.5%), 청각장애(12.2%)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가 60% 이상으로 많음을 알 수 있음

■ 중증장애인의 장애등급은 2급이 65.7%, 1급의 34.3% 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장애아동의 경우 1급 51.0%, 성인장애인의 경우 2급 67.7%, 장애노인의 경우 2급 68.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층에서의 최중증인 1급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장애아동의 주된 장애유형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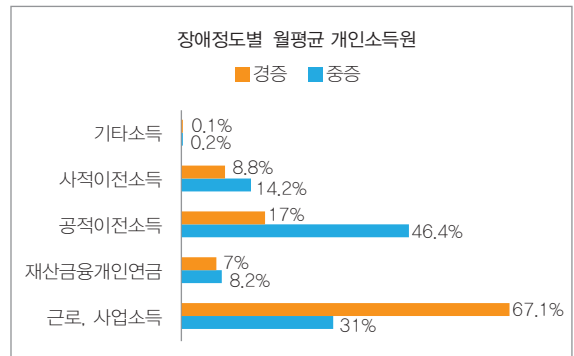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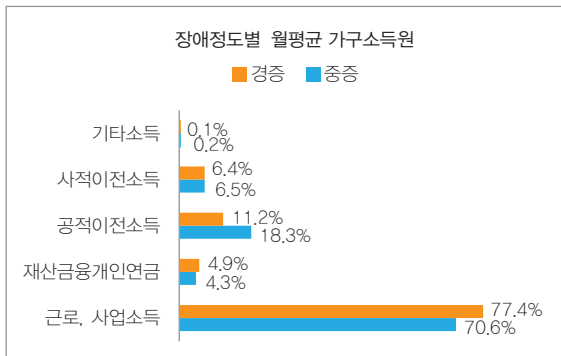
4.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특성

■ 장애정도에 따른 월평균가구소득은 중증장애인이 199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204만원, 전체 장애인의 203만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가구소득원은 근로·사업소득 70.6%, 공적이전소득 18.3%로 나타났고, 경증장애인의 경우는 근로·사업소득 77.4%, 공적이전소득 11.2%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가구소득원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근로·사업소득 비율이 낮고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정도에 따른 월평균개인소득은 중증장애인이 54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91만원에 비해 6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전체 장애인의 82만원에 비해서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주된 개인소득원은 공적이전소득(46.4%), 근로사업소득(31.0%)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증장애인인 근로사업소득(67.1%), 공적이전소득(17.0%)의 순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개인소득원은 경증장애인에 비해 근로·사업소득 비율이 낮고 공적이전소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월평균 추가비용은 236천원으로 나타나, 경증장애인의 124천원에 비해, 그리고 전체 장애인의 추가비용인 160천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중증장애아동은 496천원, 중증성인장애인은 215천원, 중증장애노인은 261천원으로 나타나, 장애아동, 장애노인, 성인장애인의 순으로 추가비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추가비용 구성내용은, 중증장애아동은 보육·교육비(32.0%)가, 중증성인장애인은 의료비(35.5%)가, 그리고 중증장애노인은 의료비(40.1%) 및 보호간병비(2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 차이를 보임

〈표 4〉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단위: %, 천원)

구분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노인	전체
교통비	15.7	16.2	8.9	13.6
의료비	18.4	35.5	40.1	33.6
보육, 교육비	32.0	1.5	0.0	7.3
보호간병비	3.8	14.4	25.0	15.8
재활기관이용료	4.8	2.4	0.7	2.3
통신비	3.0	4.0	2.6	3.3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	6.9	14.9	16.0	13.7
부모사후대비비	10.0	4.5	0.2	4.2
기타	5.4	6.5	6.4	6.2
합계	100.0	100.0	100.0	100.0
평균값	496	215	261	261

5. 중증장애인의 건강 및 보호 특성

- 중증장애인은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46.9%, '매우 나쁨' 19.1%, ' 좋음' 31.3%, '매우 좋음' 2.7%로 나타나,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66%로 나타난 반면, 34%는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남의 도움 필요정도는 전체적으로 '일부 도움 필요' (25.3%), '대부분 도움 필요' (22.2%), '거의 남의 도움 필요' (21.4%), '혼자서 스스로' (17.6%), '대부분 혼자서' (13.7%)의 순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의 68.9%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는 장애아동(96.7%), 장애노인(74.2%), 성인장애인(61.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노인	전체
혼자서 스스로	0.8	23.2	12.4	17.6
대부분 혼자서	2.4	15.7	13.4	13.7
일부 도움 필요	16.9	26.4	25.8	25.3
대부분 도움 필요	41.9	20.5	19.2	22.2
거의 남의도움 필요	37.9	14.3	29.2	21.4
계	100.0	100.0	100.0	100.0

*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시 남의 도움 필요정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15%, 혼자서 하는 경우가 84.9%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 중 93.5%가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별로는 장애아동의 99.3%, 성인장애인의 91.3%, 장애노인의 94.4% 수준임
- 주로 도와주는 사람은 '부모' (33.0%), '배우자' (28.6%), '자녀' (13.7%)로 주로 가족을 통하여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

6. 중증장애인의 복지 특성

- 중증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공공요금 · 시설이용료 감면 및 할인' (92.4%),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세금지원' (57.1%), '소득지원' (52.6%), '보조기구 지원' (27.8%)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 시설이용료 감면 및 할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아동은 ‘돌봄 서비스’ (55.6%), 성인장애인은 ‘소득지원’ (57.0%), 장애인노인은 ‘자동차표지발급 및 세금지원’ (57.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증장애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공공요금 · 시설이용료 감면 및 할인’ (92.9%),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및 세금지원’ (50.8%), ‘소득지원’ (18.1%), ‘보조기구 지원’ (10.7%)의 순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에 비해 소득지원과 보조기구 지원 이용경험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표 6〉 장애정도별, 연령대별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중증				경증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전체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전체
소득지원	39.5	57.0	48.4	52.6	32.9	17.3	18.5	18.1
의료지원	18.5	19.0	10.0	16.1	17.7	7.0	4.6	6.2
보조기구지원	16.9	25.0	36.0	27.8	10.1	6.5	16.2	10.7
자동차표지 발급 및 세금지원	75.0	53.7	57.9	57.1	58.2	57.9	41.2	50.8
공공요금감면 및 이용 할인 등	89.5	93.0	92.0	92.4	88.6	96.3	88.7	92.9
돌봄서비스	55.6	12.6	27.5	21.5	40.5	0.5	4.6	2.9
자립자금대여	-	0.1	-	0.1	-	0.3	0.1	0.2

주: 중복응답

- 중증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경험은 전체적으로 38.8%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³⁾ 31.8%, ‘특수교육 및 관련지원서비스’ 17.6%, ‘직업재활시설’ 3.6%, ‘주단기보호시설’ 2.6%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장애아동은 ‘특수교육 및 관련지원서비스’ 71.0%, 성인장애인과 장애인노인은 ‘지역사회재활시설’ 각 35.3%, 16.8%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중증장애인의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희망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재활시설(69.3%), 주단기보호시설 (17.7%), 직업재활시설(16.1%), 특수교육 및 관련지원서비스(9.6%)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모든 계층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희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경험 (단위: %)

구분	장애아동	성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전체
직업재활시설	0.0	6.0	0.2	3.6
지역사회재활시설	60.5	35.3	16.8	31.8
주단기 보호시설	5.6	2.5	1.7	2.6
특수교육 및 관련 지원 서비스	71.0	17.8	1.0	17.6

- 중증장애인의 복지욕구는 소득보장(37.0%), ‘의료보장’ (32.2%), ‘주거보장’ (8.0%), ‘고용보장’ (6.2%)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았는데, 장애인노인의 경우는 소득보장(34.3%) 보다는 의료보장(45.3%)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이 차이가 있으며,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 · 교육보장’에 대한 욕구(21.0%)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음

3) 복지관, 재활병의원,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정신의료기관, 이동지원서비스센터,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 자립생활센터, 점자도서관, 정신보건센터가 포함됨.

○ 경증장애인의 경우 소득보장(38.2%), 의료보장(32.1%), 고용보장(9.4%), 주거보장(7.4%)의 순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에 비해 고용보장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중증장애인의 연령대별 사회·국가에 대한 요구사항(1순위) (단위: %)

구분	장애 아동	성인 장애인	장애 노인	전체	구분	장애 아동	성인 장애인	장애 노인	전체
소득보장	23.4	40.7	34.3	37.0	문화여가및체육활동보장	4.8	0.8	1.0	1.2
의료보장	23.4	26.5	45.3	32.2	장애인 인권보장	11.3	4.6	2.2	4.4
고용보장	5.6	8.4	2.4	6.2	장애인 인식개선	4.8	1.7	1.0	1.8
주거보장	3.2	9.6	6.6	8.0	장애예방	0.8	1.1	1.2	1.1
이동권보장	1.6	3.5	3.9	3.4	기타	-	0.3	0.5	0.3
보육·교육보장	21.0	2.3	0.5	3.5	없음	-	0.5	1.2	0.7
					계	100.0	100.0	100.0	100.0

7. 과제

■ 중증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맞춤형 서비스 지원

- 중증장애아동 대상의 다양한 보육 및 교육지원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때 지적, 자폐성장애 등 정신적 장애유형의 장애아동이 많다는 장애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특히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의 경우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가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중증성인장애인은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데, 이는 중증장애인들의 주된 소득원이 공적이전소득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나타냄. 따라서 경제활동참여 연령대인 중증성인장애인 중 근로활동이 가능한 대상에게는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장애유형별로 개발하여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대를 통해 취업욕구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함.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공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중증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와 노인의 어려움을 동시에 가진 계층으로 외부신체기능장애 특성이 많으므로 일상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활보조기구 등에 고려가 필요하며, 욕구가 가장 높았던 의료지원과 돌봄지원 확대가 필요함. 특히 65세 이후 장애노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장의 연계를 통해 의료 및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취약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고려

- 중증장애인 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 있거나, 독거상태인 경우 중증장애인가구 중에서도 취약한 가구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장애인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성인장애인층(18.8%)에서, 독거의 경우 장애노인층(17.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증장애인가구내 장애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므로 돌봄지원 및 가족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가, 독거 중증장애인인 경우 24시간 돌봄지원 등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들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고려되거나, 추가적인 형태의 서비스가 다각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 일상생활 자립정도에 따른 돌봄서비스 지원

-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영역은, 연령대별로 볼 때 장애아동은 학교활동시, 성인장애인은 취업활동시, 그리고 장애노인은 의료적 지원 측면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시 이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돌봄서비스 제공시 난이도를 고려한 서비스 수가의 차등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주로 가족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도와줄 외부인(가족 제외)에 대한 욕구도 높게 나타남. 따라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시 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시간의 확대 등을 통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발달장애 등 특정 장애영역의 경우 가족에 의한 돌봄지원이 공적으로 제도화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으로 소득수준이 낮아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열악함의 근본 이유는, 중증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 가족원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활동에 따른 경제적 활동의 제약,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소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이 있을 것임
- 현재 장애인연금제도 등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음. 향후 장애인 소득지원제도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지원 및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보전의 강화가 필요함

■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최근 중증장애인들은 다양한 자립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지는 잠재력을 실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음. 따라서 기존 우리사회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바르게 인식하도록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

집필자 | 김성희 (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문의 | 02-380-8232

발행인 | 최병호 발행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2-705)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 TEL 02)380-8000 | FAX 02)352-9129 | <http://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